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인센티브 공략… 5G SA 전환 속도

초저지연 5G 고유 기능 구현 위해 연말까지 5G SA 코어망 연동 조건 5G 무선국 구축 시 재할당 대가 낮춰

통신 3사가 5G 단독모드(SA) 전환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기존 3G·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기존 5G 무선국을 5G SA 코어망에 연동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면서다.

1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올해 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275MHz 폭의 재할당을 위한 정부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재할당하기로 한 3G·LTE 주파수는 총 370MHz 대역폭으로, 이용기간 만료 시점이 올해 6월과 12월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만료된 95MHz 폭은 사업자들의 재할당 신청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통신 3사가 현재 정부의 최종 승인과 재할당 조건 이행을 앞두고 있는 대상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5G 단독모드 전환에 속도 내는 통신 3사.

은 올해 말 이용기간이 끝나는 나머지 275MHz 폭이다.

주파수 재할당에는 조건이 붙었다. 통신 3사는 올해 말까지 기존 5G 무선국을 LTE 코어망이 아닌 5G SA 코어망에 연동해야 한다. 정부는 LTE 보조망 의존도를 낮추고 초저지연·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고유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5G는 2019년 상용화 초기부터 LTE 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를 중심으로 제공돼 왔다. 통신사들은 LTE 코어망과 기존 설비를 활용해 초기 투자 부담과 구축 기간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때문에 기존 LTE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지속 제기됐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

지만 '반쪽짜리 5G'라는 오명을 남긴 배경이다.

이 같은 이유로 5G SA 전환은 통신 3사에 당면한 필수 과제가 됐다. 다만 SA 전환만으로 체감 품질 개선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LTE 보조망 의존도를 낮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내·지하 등 전파 음영지역을 중심으로 5G 커버리지를 보강해야 한다.

현재 국내 LTE 무선국 대비 5G 무선국 규모는 3분의 1에 그친다. 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 전파누리 통계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기준 LTE 전국망·보조망은 총 112만488개인 반면 5G 무선국은 37만6095개 수준이다. 5G 단독망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5G SA 전환과 실내 5G 무선국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인센티브를 연계했다. 통신 3사의 3G·LTE 재할당 대가는 합산 약 3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재할

당 조건으로 SA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재할당 기간 중 실내 5G 무선국을 1만국 이상 추가 구축하면 대가는 3조원으로, 2만국 이상이면 약 2조900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 중 5G SA 전환이 가장 빠른 곳은 KT다. KT는 2021년 국내 최초로 5G SA를 상용화했으며 2024년에는 5G 망에서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VoNR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SA를 적용한 단말을 갤럭시에 이어 아이폰 일부 모델까지 확대했다. 다만 SA 전환 핵심인 전 5G 무선국의 코어망 연동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전국 주요 기지국의 5G SA 작동 여부와 음영 지역 등을 점검하고 있다. 단말기 적용의 경우 LG유플러스는 오는 9월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통해 품질 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구글, '영향 공작' 韓 정치 유튜브 채널 449개 폐쇄

지선 앞둔 5월, 전체 중 81.7% 폐쇄 정부·정당 비판·지지 채널 모두 포함 여러 채널 조직적 움직임 여부가 기준

구글이 올해 2분기 한국 정치 관련 콘텐츠를 게시한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특정 메시지를 확산하는 '영향 공작'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폐쇄했다.

특히 폐쇄 채널 10개 중 8개 이상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에 집중됐다. 다만 구글은 이들 채널의 활동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17일 구글 위협분석그룹(TAG)이 공개한 '2026년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직적 영향 공작 조사 과정에서 폐쇄된 한국어 유튜브 채널은 총 449개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4월 22개, 5월 367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 위치한 유튜브 본사 간판. /AP·뉴시스

60개다. 전체의 81.7%가 5월에 폐쇄됐다. 보고서에 나타난 시점은 구글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채널이 활동을 시작하거나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5월 폐쇄가 집중됐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 비판 142개 무더기 폐쇄…지지 채널도 제재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지난 5월 적발된 한국어 유튜브 채널 142개다. 구글에

따르면 이들 채널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게시했다.

하지만 제재 대상의 정치적 방향이 한 쪽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나 정당을 비판하는 콘텐츠뿐 아니라 정부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도 포함됐다. 정부에 대한 지지와 비판 콘텐츠를 함께 게시한 사례 역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구글이 문제 삼은 핵심은 콘텐츠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여러 채널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다.

구글이 말하는 '영향 공작'은 여러 이용자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주체가 다수의 계정이나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해 특정 메시지의 영향력을 키우는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운영 주체가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여러 채널을 만든 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각각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

제 배후에는 동일한 운영 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활동이 이어질 경우 이용자는 특정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실제보다 많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일반 이용자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과 조직적인 여론 영향 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구글 조사에서 중요한 이유다.

◆'무슨 주장'보다 '어떻게 움직였나' 본다

구글 TAG는 영향 공작 조사에서 게시된 '콘텐츠 자체'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적 신호와 행동 패턴 등을 토대로 여러 계정이 조직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분석한다.

특정 정부나 정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의 활동에서 조직적인 연계성이 발견됐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인 셈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영향 공작 단속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다수

계정을 이용해 정치적 여론이나 선거 등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만으로 폐쇄된 한국어 채널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구글은 폐쇄된 449개 채널의 이름과 실제 운영 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각각의 활동을 영향 공작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해당 콘텐츠가 국내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5월 폐쇄 채널이 급증한 배경과 지방선거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만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배후에 있었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구글의 영향 공작 단속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중국과 러시아, 인도, 미국 등과 관련된 조직적 영향 활동도 조사했다. 특히 중국과 연계된 영향 공작 조사에서는 2분기에만 유튜브 채널 9173개가 폐쇄됐다.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서방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러시아 연계 채널들도 제재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KT-서울대병원, 의료분야 AX 플랫폼 구축 협력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 협력

KT가 공공 의료 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에 나선다.

KT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의료 AX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KT가 보유한 의료 분야 AX 전략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공동 추진한다. 추진 내용은 ▲의료 AX 플랫폼 표준모델 발굴 및 적용 ▲인공지능(AI) 네이티브 병원 등 정부 정책과제 실증·고도화·사업화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및 업무 효율화 ▲헬스케어 시장 확산 등이다.

구체적으로 KT는 AI·클라우드·데이터를 통합한 의료 AX 플랫폼 기획에 이어 개



지난 14일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봉균 KT 엔터프라이즈부장(왼쪽)과 백남중 서울대학교병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발·검증·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협력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임상·진료·연구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플랫폼 적용 과제

를 발굴하고 의료적 전문과 유효성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KT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추진하는 그룹 통합 DX 플랫폼 구축과 연구·개발·실증·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의료 AX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의료 AX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의 플랫폼 기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의료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AI 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AX 업무 협약은 지난 14일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KT 엔터프라이즈부장 김봉균 부사장과 백남중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민선 기자

LG U+·토스모바일, 알뜰폰 요금제 5종 선택

‘페이스페이’ 혜택 결합

LG유플러스가 2030세대 고객을 겨냥한 생활 밀착형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통합 플랫폼 ‘알뜰’에서 토스모바일 ‘페이스페이’ 제휴 요금제 프로모션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알뜰은 LG유플러스 알뜰폰 망 사업자의 요금제와 혜택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데이터 제공량에 따른 가격 비교는 물론, 각 알뜰폰 사업자의 특색 있는 제휴 상품과 프로모션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토스모바일은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로, 이달 초 자사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혜택을 결합한 알뜰

폰 요금제 5종을 출시했다.

토스모바일이 운영하는 페이스페이는 고객이 얼굴과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면 지원 매장에서 지갑이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다.

해당 요금제는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7GB+ ▲10GB+ ▲71GB+ ▲100분·15GB+ ▲100GB+ 등으로 구성했다. 가입 후 7개월 기준으로 월 8000원부터 1만 6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요금제 혜택은 매월 페이스페이 쿠폰(2000원 상당)을 최대 24개월간 제공한다. 단 개통한 달 2개월 후부터 받을 수 있다. 이후 4개월 간 요금제 가입을 유지하면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추가로 제공해 최대 5만8000원 상당의 페이스페이 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민선 기자